



태국 파야오 신학교에서 64호(2020/6/10)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1)**

평안이 없는 요즘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평강을 기원하며 다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전례없는 많은 일이 생기고 있는 요즘, 태국도 별반 다름이 없는 이 때에 우리의 능력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고대하며 문득 문득 생기는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몰아 내었으면 합니다.

당연시되어 오던 많은 것들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어 학교의 학사 일정에도 다양한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인 이상의 모임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교회 예배와 졸업식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학사모를 쓸 날을 고대하며 여행 연습을 해 오던 4학년 학생들은 어쩔수 없이 내년 3월로 그 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졸업하자 마자 예정되었던 2 커플들의 결혼식도 초청 카드를 돌리고 난 후였지만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요.

4월 초부터는 상점 폐쇄, 도시간의 이동 제한, 야간 통행 금지도 생겨서 방학 동안 흔히 있는 신입생 인터뷰들도 거의 못했고, 새학기도 한 달 늦춰진 7월 1일 개학을 지시 받았습니다. 한 태국인 목회자가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소그룹 예배를 인도하던 중 5인 이상의 불법 집회라며 이웃의 고발로 마을 면장과 경찰에게 훈계를 들은 사례도 있었지요.

한국 교회처럼 온라인 예배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이 곳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불드심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주 전부터 교회 예배가 다시 허용이 되었으나 예전의 모습과 성도들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 뿌리깊은 학교의 산재한 문제들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태국에서 가장 큰 규모(학생 숫자/캠퍼스 크기)의 신학교인 저의 학교는 그 동안 많은 영적인 리더자들을 배출하여 왔고 그들로 인해 태국 전역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을 뿐 아니라 인근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졸업생도 더러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를 배출하는 곳이니만큼 항시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시험과 환란을 겪어 왔습니다. 13년간 이 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학생들과 간혹 교수들도 이 시험 때문에 중도 하차를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왔고, 학교적으로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되시는 그 분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캠퍼스는 많은 학생들이 중생을 체험하는 영적인 고향이 되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 동안 저의 부부는 학교 내의 정치적인 면과 연루되지 않고 학생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첫번째 사명이요 본분임을 잊지 않으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 동역해 왔던 4분의 태국인 학장들의 불완전한 리더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잘 동역해 왔는데, 현 학장(수밋)이 임기를 시작했던 2년 전부터 학교가 대대적인 몸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영적인 리더쉽의 부재로 동역자들과 학생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어왔고 수면에 깔려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부각되어져서 지난 2년 동안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을 이사회에 계속 제출하고 이사들과 교수들의 모임이 3차례 있었으나 한결같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 답으로 돌아왔지요.

특히 학교에서 사례를 받는 태국인 선생님들에겐 쫓겨나지 않으려면 복종하라며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권력남용이 일쑤여서 이번 4월 모든 태국인 교수님과 선교사들 까지도 사임을 했습니다. (내년에 정년 퇴임을 할 64세의 태국인 싱글 여자 1분 제외)

모든 동역자들이 이사를 나가 버린 상황 속에도, 7월 1일 개강하면 캠프스로 돌아올 학생들 때문에 주저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하다가 저희 부부도 마침내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사실은 학교를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학장이 3년 남은 임기를 못채우고 학교를 어서 빨리 떠나 주기를 기대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었고, 이 분이 떠나면 바로 함께 복귀를 약속했습니다. 이 분이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학교를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까요.

♥ 저의 가정의 새로운 걸음

그래서 13년간 살아왔던 학교 사택을 떠나 월세 집을 구하는 중입니다. 6월 1일이 되어서야 도시간 이동 제한이 해제되었기에 그 동안 마음은 있었으나 집을 구하려 다닐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3년만에 처음으로 학교를 떠나 안식년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현재 치앙라이 쪽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개인적인 책들은 대부분 학교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기본적인 짐만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학장이 오시면 이전의 동역자들과 함께 바로 복귀할거고요.

저는 이 곳에서 계속 4학년 학생들에게 헬라어를 강의해 왔는데, 학생들이 사용할수 있는 헬라어-태국어 사전이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사전을 이 기회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 영어 사전은 도서관에 있지만, 이것을 활용할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서 헬라어-태국어 사전의 필요성이 절실했었는데, 학교 안의 분주함으로 책상에 앉아 집중할 시간을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기회에 번역 작업을 해서 저의 신학교 뿐 아니라 헬라어를 배우는 다른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나눌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당장은 모든 학교가 아직 방학이라 개학을 하면 서서히 학교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발걸음 중에 더욱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학교 상황과 기도 제목

수밋 학장은 지금 자신의 색깔에 맞는 새로운 교수진들을 열심히 물색 중이며, 약 3주 후의 개강 준비에 분주합니다. 속히 그 인간적인 열심에 한계를 느끼고 포기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학교의 좋은 전통과 저력이 이 기간 동안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연락처 : 93syria@daum.net 66-817248202 (Mobile)

Phayao Bible Seminary, Meuang, Phayao 56000, Thailand / 국민은행 852502-04-007477 (서정실)